볼프의 인간관*

김수배**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볼프의 '철학' 개념 — '가능성' 및 '본질' 개념
3. 인간의 '가능성', '본질' 그리고 '완전성'
4. 조형 가능한 존재로서의 인간

【국문초록】

독일 계몽기 철학자 크리스티안 볼프는 철학을 "어떤 것이 존재 가능한 한에 있어서 그 가능한 것에 관한 학"(scientia possibilium, quatenus esse possunt)이라 정의한다. 이 정의는 철학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볼프 자신의 독특한 고안물이다. 이 논문의 의도는 볼프의 이 정의를 매개로 하여 그의 인간관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론 첫째 단락에서는 볼프가 위에서 소개한 철학의 정의에 도달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이 정의가 포함하고 있는 '가능성' 개념으로 그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재구성해본다. 이어서 그가 무신론자라는 비난에 맞서기 위해 자신

* 이 연구는 2014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2014-0858-01)

** 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의 가능성 개념을 스피노자의 그것에 대립하여 '내적 가능성'으로 설명하면서 제시한 '본질' 개념의 의미를 밝힌다(2). 그 다음으로는 볼프가 인간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본질 개념의 사용을 가급적 회피하면서 그 대신 사용한 '완전성' 개념이 볼프 자신의 인간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천착(3)하고자 한다. 마지막 결론 부분(4)에서는 볼프가 인간에 관한 전통적인 본질주의적인 관점의 인간상과 대조되는, 서양 근대철학 내에서도 그 이전까지 어느 철학자에 의해서도 명확한 표현을 부여받지 못했던 이른바 '조형 가능한'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인간관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제어: 크리스티안 볼프, 인간관, 철학 정의, 가능성, 인간 본질, 완전성

1. 들어가는 말

볼프의 철학 정의는 서양철학의 전통 내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예컨대 Aërometriae elementa(『기상학 기초』)에서 철학을 "가능한 모든 것들 그 자체에 관한 학"(rerum omnium possibilium, qua talium, scientiam)으로 정의 내린다. 또 독일어 논리학에서는 "[철학은] (…) 모든 가능한 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가능한가에 관한 학"(eine Wissenschaft aller möglichen Dinge, wie und warum sie möglich sind)이라 정의한다. 이 두 정의는 내용상으로 서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보이나,[1] 독일어 논리학의 라틴어 번역 작품과

1) *Aërometriae elementa,* "Praefatio" 4 이하 [쪽수 표시 없음]; *Deutsche Logik,*

『철학 일반에 관한 예비 논고』(이하 Discursus praeliminaris) 등에서는 또 다른 정의가 등장한다. 거기에서는 철학이 "어떤 것이 존재 가능한 한에 있어서 그 가능한 것에 관한 학"(scientia possibilium, quatenus esse possunt)이라 정의되고 있다.[2] 이 정의들이 완전히 동일한 의도에서 제시된 것인지 또는 서로 수정이나 보완 관계에 있는지도 하나의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만, 정의 자체가 워낙 특이하여 그 안에 내포된 볼프의 진의를 파악하기는 수월하지 않다.

일단 이 글의 의도는 볼프의 철학 정의를 매개로 하여 그의 인간관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볼프가 위에서 소개한 철학의 정의에 도달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이 정의가 포함하고 있는 '가능성' 개념의 의미, 그리고 볼프가 숙명론자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자신의 가능성 개념을 '내적 가능성'으로 설명하면서 이것과 동일시하는 '본질' 개념의 의미를 밝힌다(2). 그 다음으로는 볼프가 인간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본질 개념의 사용을 억제하면서 마치 그 대안처럼 사용한 '완전성' 개념이 볼프 자신의 인간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3). 마지막 결론 부분(4)에서는 볼프가 인간에 관한 전통적인 본질주의적인 관점의 인간상과 대조되는, 이른바 '조형 가능한'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인간관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3]

Vorbericht von der Welt-Weisheit § 1, 115. 볼프 작품의 표기는 일반적인 약식 표기법을 따르기로 한다. Jean École, "Note sur la définition wolffienne de la philosophie", in: (ders.,) *Nouvelles études et nouveaux documents photographiques sur Wolff,* Hildesheim · Zürich · New York 1997, p. 172 참조.

2) *Discursus praeliminaris*, § 29, p. 13. 이 정의는 볼프 자신이 1730년에 직접 작업해 펴낸 *Deutsche Logik*의 라틴어 번역본에도 그대로 반복해 등장한다. *Cogitationes rationales*, § 1, p. 1.

3) 나는 이미 「가능성에 관한 물음으로서의 철학 — 볼프의 철학 개념과 칸트의 역사철학」에서 볼프의 '철학' 정의에 등장하는 '가능성' 개념이 칸트

2. 볼프의 '철학' 개념 — '가능성' 및 '본질' 개념

볼프가 스스로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는 자신의 철학 개념을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시스템 이론을 둘러싼 논쟁을 접하는 과정에서 발전시켰다. 그가 이 논쟁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봉착했던 물음은 "과연 철학적인 문제나 물리학의 문제들이 성경에 의해 해결 가능한가"였던 것 같다.[4] 그런데 그는 이 물음에 대해 곧 단호하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림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 "성경은 자연 사물들의 현상들을 열거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해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자연사에 관한 물음들이 그 곳[즉, 성경]에서 다루어질 경우에는 확실한 결론에 이를 수 있지만, 자연과학에 속하는 물음들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5]

볼프는 천동설 지지 진영과 지동설 지지 진영 사이의 대립 구도 속에서 양측 모두가 원칙적으로 가능한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따라서 천동설을 고집하는 신학자들이 굳이 지동설을 옹호하는 [자

의 역사철학에 미친 이념사적인 영향을 재구성해 보았다.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제25집, 2010, pp. 175-200. 나아가 볼프철학이 추구한 형이상학의 쇄신, 그리고 그것이 칸트 선험철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김상봉, 「선험론적 철학의 탄생 - 볼프와 테텐스 그리고 칸트」,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제18집, 2006, pp. 1-42 참조.

4) "utrum questiones philosophicae praesertim physicae ex scriptura sacra decide possint", in: *Ratio praelectionum,* Sect. II, § 2, p. 107.

5) 보충 나. "Cum Scriptura sacra phaenomena rerum naturalium tantum recenseat, nonvero resolvat; quaestiones ad historiam naturalem spectantes, ubi eas attingit, inde quidem decidi possunt, nequaquam tamen quae pertinent ad scientiam naturalem." 이 인용문은 볼프의 무한급수 방법에 관한 1705년 학위논문 *Methodus Serierum Infinitarum*의 마지막(10번째) "부가 결론"(Corollarium)이며, 그의 Meletemata *mathematico-philosophica*, Sect. II, p. 319에 수록되어 있다. 나는 이 인용문의 소재를 슈바이거(Clemens Schwaiger) 교수와의 이메일 교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연] 철학자들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타협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지동설만을 확실하게 지지하였다. 심지어 그는 네덜란드의 탁월한 천문학자 크리스티안 하위헌스[호이겐스(Christiaan Huygens)]의 말을 빌어, "모든 천문학자들은 만일 그들의 머리가 그다지 아둔하지 않고, 또, 인간들의 권력에 맹종하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행성들 사이에서의 지구의 운동과 지구의 위치에 대해 의심의 여지없이 결론을 내릴 것이다."[6]라고까지 주장한다.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볼프가 도달한 결론은, 철학의 일차적인 임무가 가능한 것[즉, 가능한 주장, 사태, 세계 등]과 가능하지 않은 것 사이에 명석하고 판명한 경계선을 긋는 데에 있다는 견해처럼 보인다. 이러한 경계 구분이 주어지고 나면 비로소 그 이전까지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7]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진정하게 참인 [천체] 이론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되면, 낡은 사고 모델과 씨름하는 데 더 이상 시간과 수고를 낭비할 필요 없이 이제까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새로운 인식의 세계를 향한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위의 철학 정의로 돌아가 보자.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 정의들을 내용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이해한 에콜과 달리 슈바이거는, 두 번째 정의가 첫

---

6) "omnes, (…) Astronomi, nisi tardiores sint ingenio, aut hominum imperio obnoxiam credulitatem habeant, motum Telluris locumque inter planetas absque dubitatione decernunt." *Meletemata mathematico-philosophica*, Sect. II, p. 289. 이러한 비타협적인 태도로 인해 그는 자신의 멘토였던 신학자 노이만(Caspar Neumann)의 신임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한 볼프의 자전적인 설명은 Heinrich Wuttke, *Christian Wolffs eigene Lebensbeschreibung*, Leipzig 1841(Neudr.: Christian Wolff. *Biographie*, Hildesheim · New York 1980), pp. 7-9 참조.

7) Clemens Schwaiger, "Christian Wolff. Die zentrale Gestalt der deutschen Aufklärungsphilosophie", in: *Philosophen des 18. Jahrhunderts: eine Einführung*, hg. v. Lothar Kreimendahl, Darmstadt 2000, p. 28.

째 정의에 대한 당대 신학자들의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한다. 슈바이거는 주장의 근거 제시를 위해 볼프의 가능성 개념이 겪은 변화에 주목한다. 그래서 그는 가능성 개념이 애초에는 "실제로 현존하든가 그렇지 않든가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8] 을 지시했지만, 나중에는 그러한 정의를 스스로 비판하고 다시 무모순성에 의거하여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볼프는 독일어 형이상학에서 가능성을 "자신 안에 모순적인 것은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은 것"[9]이라 정의한다. 슈바이거에 의하면 볼프는 가능성 개념을 무모순성이라는 최소 조건에 의거해 다시 정의함으로써, 철학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무제한적으로 다루려는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비켜가려 했다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이렇게 수정된 의미의 가능성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정의는 마치 철학이 논리적으로 모순적이지 않은 것(추상적인 사유의 대상들)만을 다룰 뿐이고 실현된 것, 즉 현실적인 것은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10]

그러나 내가 보기에, 볼프 자신은 가능성 개념을 설명하면서 위

---

8) *Deutsche Logik*, § 3, p. 115; École, "Note sur la définition …", p. 172; Schwaiger, "Christian Wolff …", p. 28 참조.

9) "was nichts widersprechendes in sich enthält", in: *Deutsche Metaphysik,* § 12, p. 7 이하. 동일한 방식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는 Schwaiger, "Christian Wolff …", p. 33, 주 15 참조.

10) Schwaiger, "Christian Wolff …", p. 29 및 p. 33. 슈바이거는 볼프가 어떤 사태가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통상 명백하게 주어지지 않는 반면, 논리적인 모순의 존재는 의심의 여지없이 확인할 수 있기에 무모순성이라는 최소 조건에서 출발하려 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김창원은 '가능성' 개념을 '세계' 개념과 연관시켜 이해하면서, 전자의 수정이 없었더라면, 우주론이 다루게 될 대상이 실재하는 세계에 국한되는 셈이기 때문에 독일어 형이상학에서의 논의의 핵심이 상실되고 말았을 것이라 주장한다. Chang Won Kim, *Der Begriff der Welt bei Wolff, Baumgarten, Crusius und Kant. Eine Untersuchung zur Vorgeschichte von Kants Weltbegriff von 1770*, Frankfurt a. M. 2004, p. 68 이하 참조.

와는 조금 다른 비판, 즉 그의 철학이 모든 가능적 존재자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는 물음을 다룬다는 점에서 노출되어 있었던 비판을 벗어나려는 의도를 더 분명하게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볼프가, 자신이 수정한 가능성 개념이 스피노자나 홉스 등의 가능성 개념과 아주 다르며 따라서 그들이 시달렸던 '숙명론자'(Fatalisten)나 기계론자라는 비판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피노자나 홉스 등은 가능한 것을 "이미 존재했거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또는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볼프는 이것이 '좁은 의미'의 가능성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볼프는 스피노자가 과거로서든 현재로서든 미래로서든 현실로 되는 것만을 가능한 것이라고 여김으로써 가능성 개념을 이 세계 내에서 실현되는 것에 제한시켰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자신이 제시한 부정적인 방식의 정의, 즉 가능한 것은 "모순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정의는 현재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결코 [이 세계 내에서] 한 번도 실현되지 않을 것까지 가능한 것의 범위 안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볼프가 보기에 전자의 개념에 따르면 숙명론이 불가피하다. 이 세계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찌되었든 가능한 것이기에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볼프 자신의 가능성 개념에 따르면 이 세계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도 다른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숙명론과 무관하다는 논리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프는 자신의 가능성 개념은 "단적으로 가능한 것"(schlechterdings möglich)을 지칭한다고 한다. 그는 또 자신의 가능성 개념에서 가능한 것과 스피노자 등의 그것에서 가능한 것 사이의 차이를 "내적으로 또는 내재적으로 가능한 것"(possibile internum sive intrinsecum)과 "외적으로 또는 외재적으로 가능한 것"(possibile externum sive extrinsecum) 사이의 대립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전자는 자신의 가능성의 근거를 자신 안에 가지지만, 후자는 자신의 실현의 근거가 외부 원인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 한다.[11] 그러므로 볼프의 설명에 따르면 가능한 것은 자기 자신의 본질이 원인이 되어 가능한 것이되 반드시 이 세계 내에서만 가능해야 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이렇게 보면 가능성 개념의 수정에 의해 철학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만을 불가능한 것으로서 배제해 버림으로써 오히려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세계나 조건 속에서는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언제 또는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를 탐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볼프에게 있어서 철학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실현될 수 있게 하는) 조건에 대한 탐구인 것이다. 에콜 역시 볼프의 '가능한 것'을 모순 없이 사유될 수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두 부류의 정의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래서 볼프에게 있어서 "철학의 고유한 속성은 (…) 본질로부터 현존에로 이행하는 경로를 밝히는 것"[12]이라고 결론 내린다.

볼프의 철학 개념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한 부쉬만은 더욱 흥미로운 주장을 펼친다. 그녀에 의하면, 이 개념이 "의지에 동기를 부여하고 행사하는 학문(scientia affectiva practica)"이라는 그의

---

11) *Anmerckungen*, § 6, p. 12 이하. 이런 의미에서 "내적 가능성"은 "본질"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12) "le propre de la philosophie (…) est d'éclairer le passage de l'essence à l'existence.", in: "Note sur la définition …", p. 174. 에콜의 다음 글도 참고할 것. "그[= 볼프]의 말에 따르면 바로 이것이, 철학이 마치 본질들 자체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그 고려되고 있는 본질들을 기술하는 일보다는 그 본질들이 현실화 되는 근거들을 검토하는 일을 자신의 과제로 삼는, 또는 (…) 본질로부터 현존에로의 경로를 밝히는 일을 자신의 고유한 과제로 삼는 이유이다."("La définition de l'existence comme le complément de la possibilité et les rapports de l'essence et de l'existence selon Christian Wolff", in: *Nouvelles études* ..., p. 126 이하).

학문관으로부터 발전해 나온 것이며,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구상과 결부된 사명"(von vornherein eine konzeptgebundene Bestimmung)을 띤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scientia possibilium"을 올바로 이해할 경우, 그것은 그저 '가능한 모든 것에 관한 학'(Wissenschaft von allem, was möglich ist)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학'(Ermöglichungswissenschaft)을 뜻한다는 것이다.[13]

위와 같은 해석을 기반으로 하여 그의 철학 정의를 재음미할 경우, 우리는 그것이 개별 학문들이 다룬 사실적인 것들 전체는 물론이고, 아직은 현실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기에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 있는 것, 즉 실현 가능한 것들까지 다룬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포괄적인 보편학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볼프가 이해하는 가능성은 논리적인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혹은 자연적)인 가능성이나 형이상학적인 가능성까지 의미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그는 위에서 이미 언급했던 독일어 논리학의 주장, "나는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부른다. 그것이 실제로 현존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무관하다"[14]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충분한 근거(또는 어떤 이유)를 가져야만 한다.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왜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지 않고 오히려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곳(형이상학 §§ 30, 31)에서 더 증명될 것이다."[15]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고 충분한 물리적, 형이상학적 근거에 의

13) Cornelia Buschmann, "Scientia affectiva practica – scientia practica universalis – scientia possibilium. Wolffs Wissenschaftsbegriff – Prolegomenon oder Abbreviatur der Metaphysik?", in: *Christian Wolff und die Europäische Aufklärung,* Teil 2, Hildesheim · Zürich · New York 2007, p. 106 참조.

14) *Deutsche Logik*, "Vorbericht von der Welt-Weisheit", § 3, p. 115.

15) 같은 책, § 4, p. 115.

해 현실화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볼프에게서 철학함이라는 활동은 그 대상을 존재자에 국한하지 않고 그 존재자의 존재 가능성까지 다룬다. 이때 존재 가능성은 그 존재자로 하여금 그 존재자이도록 만들어 주는 것, 즉 본질을 의미하므로 그것에 대한 탐구는 본질에 대한 탐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에콜도 지적했듯이 그것은 나아가 무모순적인 사유 가능성으로부터 실현 가능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사유 실험 공간 안에서 모순이 없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 어떻게 하면 어떤 세계(조건)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라는, 현실화에 관한 물음이 철학의 주요 과제가 됨을 뜻한다. 물론 과거의 철학자들도 이와 어느 정도 유사한 물음들, 예컨대 생성의 문제를 다룬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형이상학의 여러 주제들의 하나였을 뿐 철학의 과제 그 자체와 동일시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모순 없이 사유 가능한 어떤 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독일어 형이상학에서 볼프는 이렇게 적고 있다

> "어떤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모순적인 것을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네 개의 각으로 되어있다는 것과 둥글게 된다는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각의 탁자가 둥근 탁자가 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사각이었던 것에서 그 네 개의 각을 잘라냈을 때 비로소 둥근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니까 그 두 요소들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 이제 [우리는] 가능한 것은 모순적인 것을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고(§ 12)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은 더욱 분명하다. 즉 어떤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한갓 가능성으로부터 그것이 바로 존재하게 된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내가 어떤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현존한다든지, 이미 현존했다든지, 미래에 현존하

게 되리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16]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이 아니라 바로 그 사물이게 해주는 것이 본질인데, 자신의 본질 안에 현실성을 포함하는 유일한 존재인 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물들은 자신들의 본질이 실현될 가능성의 조건 가운데 일정 부분을 자신들의 외부에서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마주치게 되는 모든 사물들이나 현실들은 자신들의 본질에 있어서 스스로 완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 원인들에 의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외적 원인들은 그 자신들이 다시금 우연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규정된다. 따라서 신 이외의 모든 사물들은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17]

이제 볼프는 가능한 것 이외의 것이 현실적인 것이 될 수는 없지만, 모든 현실적은 것은 동시에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현실성으로부터는 언제나 가능성이 추론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만일 내가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그것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모순적인 것을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능한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능성 이외에 더 많은 것"[18]이 보태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16) *Deutsche Metaphysik*, § 13, p. 8.

17) *Anmerckungen,* § 7, p. 16 참조.

18) *Deutsche Metaphysik*, § § 14, 15, p. 9. 볼프는 라틴어 존재론에서 이것을 "complimentum possibilitatis"라고 표현했다. 에콜은 이와 관련해 볼프가 본질 개념을 내적 가능성과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하므로 결국 그가 "본질을 탈현존화"(la désexistentialisation de l'essence)시킨 것으로 이해한다. "La notion d'être selon Wolff ou la 'désexistentialisation de l'essence', in: Nouvelles études …, p. 107 이하 참조. 한 사물의 본질이 곧 그 사물의 내적 가능성과 다르지 않으므로 사물의 현실화는 본질에 의해서는 온전하게 이해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가능한 것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볼프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한데, 그것은 그 사물이 규정되는 방식을 아는 문제라는 것이다.[19] 이것은 또 "세계 속에서 주어진 것들"(die Begebenheiten in der Welt)의 '연관 관계'(Verknüpffung der Dinge; nexus rerum)가 어떠한가를 아는 것에 관한 문제로 간주된다.[20]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볼프가 개별 학문들의 진보와 그 결과로 획득되는 지식들의 증가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것들의 지속적이고 논리적인 결합에서 철학이 지향하는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를 찾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사물들의 연관 또는 결합 관계는 단순히 인과적 관계뿐 아니라 목적적 관계까지 포함한다. 그러므로 철학의 목표에는 이 세계나 다른 가능적 세계들에 내재하는 합목적적인 질서를 발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3. 인간의 '가능성', '본질' 그리고 '완전성'

볼프의 철학 개념 정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가능성 개념의 의미를 정리해 보았는데, 그 결과 그의 철학은 존재자의 존재 가능성, 다시 말해 존재자를 존재자로 만들어 주는 것, 즉 본질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말하자면 볼프에게서 철학은 본질과 그 본질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탐구인 셈이다. 이제 볼프가 본질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며, 또 인간의 본질 또는 인간의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검토해 볼 차례이다.

---

19) *Deutsche Metaphysik*, § 35, p. 19 참조.

20) *Anmerckungen*, § § 176, 190, pp. 286-289, 310 이하 참조.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당연히 라이프니츠가 중시한 "충족 이유율"이 놓여 있다.

"어느 한 사물에 귀속되는 것들에 대한 근거를 포함하는 것을 본질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어느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자는 그 사물에 귀속되는 모든 것들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의해 어느 사물이 자신이 속한 종(species, Art)으로 규정되는가를 이해할 때 그 사물의 본질을 인식한다."[21]

"한 사물의 본질은 그 가능성이고, 한 사물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를 아는 자는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이 어떻게 그것이 속한 종으로 규정되는가를 이해할 경우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아는 것이다."[22]

그런데 볼프는 어떤 사물에 대립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모순을 포함하게 될 경우, 이것은 바로 그 사물이 필연적으로 그 사물에 속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본질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필연적인 것은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없고 따라서 불변적이라고 주장한다.[23] 이렇게 어떤 사물을 바로 그 사물이게 해주는 것이 본질이고 그것을 그 실현 근거와 더불어 이해하는 것이 곧 그 사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아는 것이므로 볼프에게서 철학은 일차적으로 본질에 관한 학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볼프는 인간관 관련해서는 그 본질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서술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그는 자연법을 언급할 때에도, 그것이 "인간의 본성과 본질에서 충분한 이유를 가진다"(rationem sufficientem habet in natura & essentia hominum)[24]고 하지만, 바로 그 본질을 무엇이라고는 직접 정의하려 하지 않는다.

---

21) *Deutsche Metaphysik*, § 33, p. 18 이하.
22) *Deutsche Metaphysik*, § 35, p. 19.
23) *Deutsche Metaphysik*, § § 36, 38-41, pp. 19, 21 참조.
24) *Institutiones juris naturae et gentium*, § 56, p. 29.

볼프는 인간의 본질이나 본성과 관련해서 그것이 어디에서 성립한다든지, 그것에 기초하는 본질적 또는 본성적 속성들에 대하여 명쾌한 설명을 제시하는 대신 여러 저서들에서 '완전성'(perfectio, Vollkommenheit) 개념에 기대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한다. 따라서 볼프의 인간관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이 완전성 개념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의도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25]

볼프는 일단 완전성을 어느 한 "사물의 다양한 요소들의 일치 내지 조화"라고 정의하며, 그 다양한 요소들 상호간의 불일치를 불완전성이라 부른다.[26] 예컨대 시계의 완전성은 그 시계의 여러 부분들이 결합되어서 시간을 올바로 가리키는 데에서 성립한다. 볼프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사물의 완전성을 두 가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한 방식은 먼저 "완전성을 평가하는 준거가 되는 것"(den Grund, daraus sie[= 완전성] beurtheilet wird)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부분들의 속성을 탐구하여 그 완전성의 준거와 비교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파악 방식은 "다양한 부분들의 속성"(die Beschaffenheit des mannigfaltigen)[27]을 먼저 탐구하고 거기에서 알아낸 것 모두를 서로 비교하여 일치의 근거를 도출해 내

---

25) 슈바이거에 따르면 볼프의 '완전성' 개념 역시 볼프 철학의 다른 중요 개념들처럼 발전 과정을 겪는데 이때 특히 라이프니츠와의 대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Clemens Schwaiger, "§ 7. Der Begriff der Vollkommenheit", in: ders., *Das Problem des Glücks im Denken Christian Wolffs. Eine quellen-, begriffs-, und entwicklichungsgeschichtliche Studie zu Schlüsselbegriffen seiner Ethik*, Stuttgart-Bad Cannstatt 1995, pp. 93-120 참조. 볼프 철학에서 이 개념이 가지는 비중은 이미 칸트의 언급에서도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각주 46 참조).

26) *Deutsche Metaphysik*, § 152, p. 78. 라틴어 존재론에서는 완전성을 다시 "다양한 것들 가운데의 일치 또는 하나 속에 있는 서로 다른 다수의 일치"(Perfectio est consensus in varietate, seu plurium a se invicem differentium in uno.)로 정의한다(*Ontologia*, § 503, p. 390).

27) *Deutsche Metaphysik*, § 157, p. 82 참조.

는 방법이다. 전자의 방식이 연역적이라면 후자는 귀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볼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물의 부분들이 만들어 내는 일치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사물의 완전성의 정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또 그는 사물의 부분들이 만들어 내는 '질서' 내지 '규칙성' 또는 '보편적인 관찰 가능성' 등의 기준을 통해서도 어떤 사물의 완전성이나 불완전성의 '정도'(Grad)를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8] 그래서 어떤 사물에게서 규칙적이고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규칙성으로부터의 예외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러니까 그 사물의 질서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그와 동시에 완전성의 정도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종에 속하는 사물들이라 해도 완전성의 정도가 사뭇 다를 수 있는데, 이는 그 사물의 속성들이 그 종의 본질에 모순되지 않으면서 각각의 단순한 요소들이 가지는 완전성의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 그리고 그것들의 결합이 허용하는 예외의 종류 때문이다.

그가 제시한 예를 보자. 시계를 이루는 각 부속품들이 제대로 결합되어 시간을 가리킨다고 했을 때 그 시계의 완전성의 정도는 시계가 얼마나 작은 단위의 시간까지 정확하게 가리키는가에 의해 알 수 있다.[29] 또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창문이나 출입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각각의 부분들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들과 얼마나 예외 없이 조화롭게 어울리는가, 그리고 그

---

28) *Deutsche Metaphysik*, § § 154, 155, 164, p. 80 이하 및 p. 87 참조. 슈바이거는 라이프니츠가 볼프에게 보낸 1715년 4월 2일자 서간에 주목하면서 이 기준의 최초 출처가 라이프니츠임을 밝힌다. 거기서 라이프니츠는 "더 규칙적인 것이 더 완전하거나, 또는 더 많은 관찰을 허용하는 것, 즉 일반적인 관찰을 허용하는 것이 더 완전하다"고 적고 있다. Schwaiger, Das Problem des Glücks …, p. 116, Anm. 482. 볼프가 이 개념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정의에서 봉착했던 어려움에 관해서는 슈바이거의 같은 책, pp. 102-106 참조.

29) *Deutsche Metaphysik*, § 154, p. 80 참조.

건물이 건축가의 건축 의도와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그 건물의 완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30]

볼프는 나중에 라틴어 존재론에서 완전성의 정도 파악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크기'(magnitudo) 개념을 통해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이때 그는 완전성과 규칙성을 동일시하기보다는, 규칙성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즉 예외 속에서도 완전성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하여 라이프니츠의 정의를 답습했던 종전의 입장을 수정한다.[31] 그리하여 그는 다수의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사물이 전체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있을 경우, 그 전체의 완전성을 규정하는 근거에 비추어 보면 각 부분들 사이의 우열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규칙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예외에 있어서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우위에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완전성에 기여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예를 읽어 보면 그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창문들을 부분으로서 가진 어떤 방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음으로써 [우리는 방을 그렇게 설계한 것이] 빛[= 채광]에게 더 큰 이유를 두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쾌적한 전망에 더 큰 이유를 두었기 때문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창문들을 만들게 된 이러한 두 가지 목적들로부터 도출된 기준[= 규칙]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우리는] 방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에 비추어 쾌적한 채광을 위하여 선택된 기준들이 전망의 쾌적함을 고려하는 규칙들보다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하는지, 또는 후자가 전자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를 명백히 판별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전체적인 인간의 목적으로부터 [우리는] 인간 신체의 개별적인 기관들에서, 심지어 그 기관들을 이루

30) *Deutsche Metaphysik*, § 172, p. 92 이하 참조.

31) "예외가 불완전성을 낳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예외가 온전한 완전성에 의해서 생긴다."(Exceptio non parit imperfectionem, sed salva perfectione fit.), *Ontologia*, § 514, p. 401.

는 각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어떤 부분들이 예외들인지[= 비정상적인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32]

그러니까 볼프는 완전성의 정도나 크기를 그저 그 구성 요소들이 보여주는 질서와 그 질서의 정도 또는 그 요소들 사이의 일치 내지 조화와 그 정도에 의해 판별할 수 있다는 — 라이프니츠의 입장을 다분히 반영한 — 애초의 설명을 크게 수정하여, 전체의 목적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33] 부분적인 요소들의 불일치나 부조화, 예외 사례들은 그것들이 얼마나 전체적인 목적의 관점에 기여하는가에 의해 완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눈(目)의 완전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시각 기관으로서만 관찰하거나, 어떻게 하면 그것이 더 완전하게 사물을 볼 수 있을까와 같이 부분적 요소들에 대해 주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전체적인 인간의 목적'(finem totius hominis)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만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시각이 적절한지, 또 눈의 구조가 얼마만큼의 예외를 허용하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한 부분에서 전체의 완전성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완전성이 발견된다

---

32) "E. gr. Ex fine alicujus conclavis, cujus fenestrae partes sunt, intelligitur, num magis habenda sit ratio illuminationis, an commoditatis prospectus, consequenter, ubi regulae ab utroque fenestrarum fine derivatae inter se colliduntur, patet, utrum regulae a commoditate illuminationis desum[p]tae sint praeferendae iis, quae commoditatem prospectus respiciunt; num hae illis proponendae. Similiter ex fine totius hominis dijudicantur exceptiones in singulis corporis humani organis, immo partibus quibuscunque obviis.", in: *Ontologia*, § 517, not., p. 404 이하. 번역문의 강조 및 보충, 원문의 보충 나.

33) 심지어 볼프는 '일치'(consensus) 개념 자체도 존재론에서 어떤 목적적인 지향을 내포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Consensum (…) appello tendentiam ad idem aliquod obtinendum"(나는 일치를 […] 어떤 동일한 것을 유지하려는 성향이라 부른다), in: *Ontologia*, § 503, p. 390.

면, 이는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4] 그래서 볼프는 "완전성의 크기는 존재자의 규정들이, [전체적인] 완전성을 설명해 주는 규칙[= 기준]들과 얼마만큼의 조화를 이루는가에 달려있다."[35]고 주장한다.

볼프는 계속해서 자신이 독일어 논리학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던 '본질적 완전성'을 "우유적 완전성"과 대비시키면서 인간의 완전성을 예로 설명한다.[36]

> "본질적 완전성은 본질적인 규정들의 일치에서 성립한다. 우유적 완전성은 (…) 우유적 규정들과 본질적 규정들의 일치라고 일컬어진다. (…) 우유적인 완전성의 예는 자유로운 행위들이 본성적인 행위들과 일치하는 인간의 완전한 삶이다[= 삶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만일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성향이, 그것이 정신에 있는 것이든 육신에 있는 것이든, 인간의 목적과 일치하는 성품으로 나아간다면, 우유적인 완전성이 존재하게 된다."[37]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볼프는 인간의 완전성을 본질적 완전성의 관점이 아닌 우유적 완전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본질적 완전성의 상태, 즉 본질적 규정들의 일치가 어디에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어 윤리

---

34) 같은 책, § 518, not., p. 405 참조.

35) "Magnitudo perfectionis est multitudo convenientiarum determinationum entis cum regulis, per quas perfectio explicatur." 같은 책, § 519, p. 405.

36) *Deutsche Metaphysik*, § 187, p. 104, 참조.

37) "Perfectio essentialis est, quae continetur consensu determinationum essentialium. Perfectio (…) accidentalis est quae dicit consensum determinationum accidentalium cum essentialibus. (…) Exemplum perfectionis accidentalis est vita hominis perfecta, in qua actiones liberae consentiunt cum naturalibus. Simliter accidentalis perfectio est, si dispositio quaedam naturalis, quae menti vel corpori humano inest evehitur ad habitum fini hominis convenientem.", in: *Ontologia*, § 528 및 not., p. 411.

학에서도 그는 기껏해야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상태가 자신의 본질과 본성에 일치할 때 그 인간의 상태가 완전하다고 하며,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가 인간의 내적 또는 외적 상태의 완전성이나 불완전성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예컨대 인간의 상태를 완전하게 만드는 행위가 선하고 그 반대 행위가 악한 행위라고만 주장할 뿐, 본질과 본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38] 인간의 완전성 특히 본질적 완전성에 관한 한 볼프는 상당히 언급을 자제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한 사실은 그가 사물의 완전성과 달리 인간의 그것이 행위 및 규범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독일어 형이상학의 주해서에서 그는 인간의 모든 행위들과 그로부터 형성되는 '품성'(Wandel)이 완전성의 정도를 내포하며, 인간은 자유로운 행위들에 의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있어서 최대한의 완전성을 산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볼프 자신이 완전성에 대해 말할 때, 자신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성'(Verbindlichkeit)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자신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어야 마땅한가를 말할 때에는 인간을 그 자신의 행위와 품성의 완전성, 달리 말해 그 인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추구해야 마땅한 어떤 사태와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라 한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자신은 결코 인간이 본성적인 능력들에 의해 완전성에 도달했다거나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한다.[39] 이렇게 보면 인간의 완전성은 어떤 사실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 내지 규범의 문제이며, 행위나 품성의 완전성에 관한 것이고 특히 인간이 자신의 행위와 품성을 통해 지향하여야 마땅한 일종의 이상(理想)

38) *Deutsche Ethik*, §§ 2, 3, p. 5 이하 참조.
39) *Anmerckungen,* § 45, p. 98 이하 참조.

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볼프는『자연 신학』에서 사물의 본질적 완전성은 어떠한 증감도 수용 가능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불변적인 것이므로, 신의 의지에 따라서 지향해야 마땅한 인간의 완전성이 이 본질적 완전성과 같은 것일 수는 없다고 말한다.[40]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 완전성은 인간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거나 분발한다고 해서 실현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염두에 두었던 인간 창조의 목적 내지 그 형상에 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구현은 결국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규범의 문제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볼프는 같은 곳에서 "인간의 완전성과 지위는 우유적이다. 신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들을 우유적인 이 완전성과 지위를 지향할 것을 원하거나 또는 그 행위들에 의해 그것을 증진시키기를 원한다."[41]고 주장한다. 앞에서 우리는 우유적 완전성이 우유적 규정들과 본질적 규정들의 일치에서 성립하는 것임을 보았다. 이제 볼프는 다시 인간의 자의에서 비롯하는 자유로운 행위들이, 그 자의에는 거의 의존하지 않으면서 본질과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본성적 행위들과 동일한 목적인에 의해 규정되어야 인간의 완전성과 지위를 겨냥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

40) "사물의 본질이 설정되면 그것으로부터 전혀 분리될 수 없는 본질적 완전성 역시 설정된다. 본질적 완전성은 이렇게 어떠한 증가도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인간이 신의 의지를 따라서 자신의 행위들을 지향해야 하는 완전성이나, 신이 인간의 행위들에 의해 증진시키기를 원하는 완전성이 결코 이 본질적인 완전성일 수는 없다." (posita essentia rei ponitur quoque ejus perfectio essentialis, ab ea prorsus inseparabilis. Cum itaque fieri non posse, ut perfectio essentialis ulla capiat incrementa; ea omnino perfectio, ad quam homo dirigere debet secundum Dei voluntatem actiones suas, & quam promoveri iisdem vult Deus, essentialis esse nequit.), in: *Theologia naturalis*, § 912, p. 886.

41) "Perfectio igitur hominis statusque ejusdem, ad quam Deus vult ut actiones suas dirigat, vel quam Deus vult ut actionibus suis promoveat, accidentalis est.", in: *Theologia naturalis,* 같은 곳.

것이다.[42] 이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 『보편 실천철학』의 다음 내용을 읽어 보면 볼프의 의도가 좀 더 분명해진다.

> "(…) 다른 피조물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에 의존하는 인간은 자신의 본질과 본성에 의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본성적 행위들에 의해서 신적인 완전성을 현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이 [자신 이외의] 다른 나머지 피조물들로부터 아는 것 못지않게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신성(神性)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그리고 신성의 완전성을 현시함에 있어서의 이 같은 적합성에서 인간 자신의 본질적 완전성이 성립한다. 인간은 이러한 신성의 완전성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공유한다. 모든 피조물들이 신성의 완전성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피조물도 비천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행위를 이중의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본성적인 행위와 일치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것과 다르도록 말이다. 자유로운 행위들이 본성적 행위와 일치할 때 우유적인 완전성은 온전하게 보존된다. 그리고 이때 인간은 우유적으로 완전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이 어떻게든 본질적으로, 다시 말해 자신의 본질과 본성에 의해, 즉 그가 신의 작품인 한에서, 완전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43]

---

42) *Theologia naturalis*, § 914, p. 887 참조.

43) "(…) patet hominem, qui eodem, quo creaturae ceterae, modo a Deo dependet, per essentiam atque naturam suam, ac inde fluentes actiones naturales perfectionem divinam repraesentare, ita ut non minus ex se, quam ex creaturis reliquis supremum Numen agnoscere possit. Et in hac aptitudine repraesentandi perfectionem Numinis perfectio ipsius essentialis consistit, quam communem habet cum creaturis omnibus, quarum nulla tam abjecta videri debet, quin eandem participet (…) Homo actiones suas liberas duplici modo determinare valet, vel ut cum naturalibus consentiant, vel ut ab iisdem dissentiant. Ubi librae cum naturalibus consenserint, perfectio accidentalis illibata conservatur, & homo accidentaliter redditur perfectus, quemadmodum essentialiter seu per essentiam & naturam suam, hoc est, quatenus est Dei opus, perfectus est." (*Philosophia practica universalis* II, § 31 not., p. 21 이하. 강조 나).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나 또는 독일어 형이상학 등에서도(§ 14) 그가 여전히 본성이나 본질에 의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규정하는 원인이 어떻게 자유로운 행위들까지 함께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예컨대 장(腸)의 소화활동이 본성적 행위이고, 음식물을 입에 넣고 삼키는 행위는 자유로운 행위라고 하면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과 같은 "자연 사물들의 사용이 곧 신에 의해 의도된 목적들"(usus vero rerum naturalium sunt fines a Deo intenti)[44]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이러한 예는 당연히 독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인간의 본성과 본질을 거의 구분하지 않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음식물 소화나 생리적 욕구의 해소 행위 등과 같이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비롯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을 규정하는 의도가 반드시 우리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규정해야 할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 추구하는 목적들의 전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오히려 본성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은 얼마든지 다른 의도에 의해 유보되거나 아예 포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마도 볼프는 본성과 자유로운 행위의 일치가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며, 그것이 실제 자연법칙에 의하여 신이 의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런 곤란함도 느끼지 않았던 것 같다.

슐츠는 이와 관련하여 볼프가 스토아 학파의 입장을 암암리에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45] 물론 볼프가 스토아 학파에

---

44) *Theologia naturalis*, § 914, p. 887.

45) Eberhard Günter Schulz, "Wolffs Moralprinzip und Kants kategorischer Imperativ", in: *Nuovi studi sul pensiero di Christian Wolff,* hg. v. Sonia Carboncini u. Luigi Cataldi Madonna. Hildesheim · Zürich · New York 1992, p. 220 이하 참조. 독일어 윤리학의 다음 내용 참조. "자연법이 우리 행위들과 자연의 일치에서 성립한다고 말했던 자들[= 스토아 학자들]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치를 무엇으로부터 인식

의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후자 역시 자연이 신적인 질서나 섭리(logos)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러한 신적 질서와 목적에 따라 움직이며, 인간도 이 필연적 질서의 일부라는 목적론적 자연 인식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볼프는 인간의 본질이나 가능성을 완전성 개념을 매개로 설명하면서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와 본성적인 행위의 일치라는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바로 그 일치를 통해 인간에게 가능한 완전성을 구현하게 하는 본성의 경험적 내용을 충분히 규명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러한 일치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적 목적들을 마치 모든 인간들이 당연히 숙지하는 것으로 전제하는 데에서 머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슐츠는 볼프의 완전성 원리가 "공허하고 비규정적이어서 쓸모가 없으며 (…) 그것이 설명해야 할 도덕성을 은밀하게 전제할 수밖에 없어서 (…) 순환론에 빠지고 마는 성향을 지닌다"는 칸트의 비판이 나름 정당하다고 평가하려 한다.[46]

할 수 있는가를 내가 이미 제시했던 만큼, 그 일치는 더 이상 [상세하게] 규정되지 않은 기준이 아니다." (*Deutsche Ethik*, § 28, p. 20.) 볼프는 또 "자연법은 인간과 사물들의 본성과 본질에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것이므로 (…) 자연[= 본성]적인 의무를 포함한다. (…) 자연법은 실로 불변적이고 필연적이다."라고 주장할 뿐이다.(Quoniam lex naturae rationem sufficientem in ipsa hominis rerumque natura habet […], ideoque obligationem naturalem continet […] lex etiam naturae immutabilis & necessaria est. [*Institutiones Iuris,* § 40, p. 21 참조]).

46) Immanuel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B 92; Schulz, 같은 글, p. 222 참조. 슐츠는 그러나 칸트 역시 정언명령의 예외 없는 적용 가능성을 특히 자살 금지와 관련시켜 설명하면서 그만 자신이 비판했던 볼프와 동일한 성격의 순환 논리에 빠져들고 말았다고 주장한다(p. 224 참조). 하지만 나의 견해로는, 칸트가 애초부터 완전성 원리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마땅할 듯하다. 그는 『신 존재 증명을 위해 유일하게 가능한 증명근거』에서 자신이 완전성 개념을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정신의 본성, (…) 감정, 실천철학의 제일 개념들까지 해명해줄 수 있는 아주 많은

4. 조형 가능한 존재로서의 인간

볼프의 인간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완전성의 원리를 무기력한 것으로 폄하해버리기 전에 그가 그것을 영혼의 능력들 사이의 조화로운 질서로도 설명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영혼의 능력들에 대한 통제가 인간의 완전성 실현에 결정적이라는 견해를 내비치기 때문이다.

> "우리가 도덕에서 고려하는 인간적인 완전성은 특히 영혼에 달려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에 관한 지식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47]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를, 그리고 아마도 본성적 행위의 일부까지도 규정하는 힘들이 바로 영혼의 능력들이기 때문에 그의 심리학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불가결한 지식을 포함한다. 볼프는 특히 실천철학과 관련해서 심리학적 지식이 지니는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는데, 주지하다시피 그는 심리학을 전통 형이상학

것"을 배웠노라고 고백하기 때문이다(A 44 이하).

47) "Perfectio humana, quam in Moralibus consideramus, potissimum ad animam spectat. Eam igitur absque animae humanae cognitione expectare non licet (…) "(*Philosophia practica universalis* II, § 35 not., p. 26). 볼프는 *Pschologia rationalis*에서 "영혼의 본질은 우주 안에 있는 유기체에 자리 잡고 있는 우주적 표상력에서 성립하며, 이 표상력은 감각 기관들의 구조에 의해 질료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제약된다."(Essentia animae consistit in vi repraesentativa universi situ corporis organici in universo matrialiter & constitutione organorum sensoriorum formaliter limitata.) [*Pschologia rationalis*, § 66, p. 45]고 하며, 또 "영혼 안에서는 본질과 본성이 동일하다"고 적고 있다(in anima essentia & natura unum idemque esse)[§ 67 not., p. 46]. 얼핏 보아서는 그가 영혼의 본성이 우리의 신체와 그 신체의 우주 속에서의 위치에 의해 제약받기 때문에 자유로운 행위의 동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가 언급하는 제약이란 우리 인간이 피조물로서 불가피하게 경험하는 한계를 의미한다.

의 일부로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험 심리학을 분과 학문으로 독립시켜 근대적인 의미의 경험 내지 실험 심리학을 선구하는 과감한 시도를 수행한다.[48]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시도되어온 영혼의 능력들에 대한 구분을 더 세분화함은 물론, 그 능력들의 메커니즘, 발달과 통제를 위한 방법 등을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연구 보고서들에 기대어 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획득한 인간 정신 능력들에 관한 경험적 지식은 인간이 자유로운 행위를 본성적인 행위와 일치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볼프는 실천과 관련된 학문들은 모두 심리학적 지식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욕구 능력을 규정하는 원리들을 확립시켜 주며, 뿐만 아니라 또 그 규정들이 심리학이 다루는 모든 지각 활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 한다. 따라서 그는 인간이 마음의 능력의 원리나 법칙을 확립함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더 나은 지배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49] 결국 그는 인간의 완전성이, 실천철학이나 형이상학 등과 같이 인간 행위가 지향하는 규범이나 가치 또는 존재 일반에 대한 추상적인 규정을 다루는 학문들의 고유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 심리학 같이 인간의 마음이나 실천 활동을 경험적으로 다루는 개별 경험 과학들의 진보에 의해서도 촉진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심리학적 법칙이나 지식은 주로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를 규제할 위험성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48) 그가 경험심리학에 거는 기대는 특히 정신 현상에 대한 수학의 적용 가능성을 진취적으로 검토하고 긍정한 'Pchychometrie' 개념에서 잘 드러난다. 볼프가 이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Jean École, *La métaphysique de Christian Wolff,* 2 Bde., Hildesheim · Zürich · New York 1990, p. 264 Anm. 7 [p. 563 이하] 참조.

49) 이에 관한 볼프의 언급은 *Psychologia empirica*, § 8 not., 6; *Anmerckungen*, § 55, p. 122; De experientia morali, in: *Horae subsecivae Marburgenses*, Anni MDCCXXI (trimestre autumnale), pp. 89, 251 등 참조.

긍정적인 관점에서만 언급된다.

볼프의 정의에 따른다면 철학은 실재하는 어떤 것을,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이념적으로 실재하는 것이든, 또는 운동이나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그 실재를 직접 대상으로 삼는 학문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아직 실재적인 대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비대상적인 상태에 관한 물음에도 관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프의 철학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 칸트에게로 이어지는 — 참신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철학은 물음을 제기함을 통해서 어떤 것의 가능성이 비로소 생각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물음까지 자신의 문제 영역 안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잠재력으로부터 파생된 철학이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와 그 파괴력은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하지만 칸트를 통해 겪게 된 서양 철학의 질적인 변화가 볼프의 철학 개념 없이는 상상하기 힘들다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한편 가능성에 관한 학으로서의 철학 개념은 존재자 일반뿐 아니라 인간에 관한 형이상학적 이해의 틀과 관점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가 라이프니츠와의 사상적 교류를 통해 발전시킨 완전성 개념은 "근본학으로서의 철학에게 체계"[50]를 부여하는, 말하자면 그의 철학의 중심 개념인데, 특히 인간의 본질 내지 자기실현의 문제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관점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했다. 볼프는 인간의 완전성을, 본성적인 동기에서 비롯하는 행위와 자유로운 행위의 이상적인 일치에서 성립하는 자기실현 과정으로 간주함으로써 결국 실천과 규범의 문제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이때 그는 그 완전성의 실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예컨대 전통 형이상학자들처럼 인간의

50) *Ausführliche Nachricht*, § 78, p. 229.

본성적인 자질이나 속성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을 통해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심리학 등과 같은 개별 과학들에서의 인식 증가와 더불어 완성 상태가 점차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여김으로써 불변적인 본성에 주목하기보다는 인간을 개선 가능하고 조형이 가능한 존재로 바라볼 것을 주문했던 것이다. 이 같은 인간관은 볼프 이전의 철학사에서는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지암바티스타 비코에 의해 암시되는 정도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51]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Kant, Immanuel: *Immanuel Kant. Werke in zehn Bänden*, hg. v. Wilhelm Weischedel, Darmstadt ^{6}1983 (^{1}1956–1964).

Wolff, Christian: *Gesammelte Werke*, hg. u. bearb. v. Jean École, Hans Werner Arndt, Charles A. Corr, Joseph Ehrenfried Hofmann u. Marcel Thomann, Hildesheim · Zürich · New York 1962ff.

Wuttke, Heinrich: *Christian Wolffs eigene Lebensbeschreibung*, Leipzig 1841(Neudr.: Christian Wolff. *Biographie*, Hildesheim · New York 1980).

2. 논문

김상봉, 「선험론적 철학의 탄생 — 볼프와 테텐스 그리고 칸트」, 한국칸트학

51) Vittorio Hösle, "Einleitung. Vico und die Idee der Kulturwissenschaft. Genese, Themen und Wirkungsgeschichte der 'Scienza nuova'", in: *Prinzipien einer neuen Wissenschaft über die gemeinsame Natur der Völker,* Teilband 1, übers. u. hg. v. Vittorio Hösle u. Christoph Jermann, Hamburg 1990, p. XXXI 및 Ferdinand Fellmann, *Das Vico-Axiom: Der Mensch macht die Geschichte,* Freiburg(Bresgau)/München 1976, p. 109 참조.

회, 『칸트연구』 제18집, 2006, pp. 1–42.
김수배, 「가능성에 관한 물음으로서의 철학 — 볼프의 철학 개념과 칸트의 역사철학」,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제25집, 2010, pp. 175–200.
Buschmann, Cornelia, "Scientia affectiva practica – scientia practica universalis – scientia possibilium. Wolffs Wissenschaftsbegriff – Prolegomenon oder Abbreviatur der Metaphysik?, in: *Christian Wolff und die Europäische Aufklärung. Akten des 1. Internationalen Chiristian-Wolff-Kongresses, Halle(Saale), 4–8. April 2004*, Teil 2, Hildesheim · Zürich · New York 2007, pp. 99–110.
Hösle, Vittorio, "Einleitung. Vico und die Idee der Kulturwissenschaft.
Genese, Themen und Wirkungsgeschichte der 'Scienza nuova'", in: *Prinzipien einer neuen Wissenschaft über die gemeinsame Natur der Völker*, Teilband 1, übers. u. hg. v. Vittorio Hösle u. Christoph Jermann, Hamburg 1990, pp. XXXI–CCLXXVII.
Schulz, Eberhard Günter, "Wolffs Moralprinzip und Kants kategorischer Imperativ", in: Sonia Carboncini · Luigi Cataldi Madonna (Hg.), *Nuovi studi sul pensiero di Christian Wolff*, Hildesheim · Zürich · New York 1992, pp. 217–237.
Schwaiger, Clemens, "Christian Wolff. Die zentrale Gestalt der deutschen Aufklärungsphilosophie", in: Lothar Kreimendahl (Hg.), *Philosophen des 18. Jahrhunderts: eine Einführung*, Darmstadt 2000, pp. 22–41.

3. 단행본

École, Jean, *La métaphysique de Christian Wolff*, 2 Bde., Hildesheim · Zürich · New York 1990.
_____, *Nouvelles études et nouveaux documents photographiques sur Wolff*, Hildesheim · Zürich · New York 1997.
Fellmann, Ferdinand, *Das Vico-Axiom: Der Mensch macht die Geschichte*, Freiburg(Bresgau) · München 1976.
Kim, Chang Won, *Der Begriff der Welt bei Wolff, Baumgarten, Crusius und Kant. Eine Untersuchung zur Vorgeschichte von Kants Weltbegriff von 1770*, Frankfurt a. M. 2004.
Schwaiger, Clemens, *Das Problem des Glücks im Denken Christian Wolffs.*

Eine quellen-, begriffs-, und entwicklichungsgeschichtliche Studie zu Schlüsselbegriffen seiner Ethik, Stuttgart-Bad Cannstatt 1995.

(**투고일**: 2015. 6. 30 **심사완료일**: 2015. 8. 2 **게재확정일**: 2015. 8. 5)

김수배
소속: 충남대학교 철학과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철학과
전화번호: 042-821-6323
전자우편: ksbkant@cnu.ac.kr

[Abstract]

Christian Wolff's View on Human Being

Kim, Su-Bae

Christian Wolff, "The Philosopher" of the German Middle Enlightenment, provides the philosophy definition that hardly finds a precursor in the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Philosophy is, according to him, "scientia possibilium, quatenus esse possunt."(science of possible things, in so far as they can be.)

This paper will make an attempt to reconstruct Wolff's view on human being by dwelling upon his philosophy definition. It starts with the background reason why Wolff has come to this definition. After that, it will try to understand what Wolff intended with the central notion of his definition, viz. the notion of "possible things."

Having discussed the meaning of the "possibilium", the substantial role of the notion "essence" will be clarified, that was introduced by Wolff to avoid the so-called "Spinozismuskritik" and, as it were, equated with "internal possibility."(2) Then it addresses the question of how the notion "perfectibility" has affected his idea of human nature.(3) In the last part of this paper(4) I will argue that, as opposed to the traditional notion of man, which is based primarily on the immutable human nature, Wolff was the first philosopher that had a clear view of human beings, namely, 'human beings as moldable beings.'

Key Words: Christian Wolff, Idea of man, Philosophy definition, Possibility, Essence of man, Perfectibility